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GIVING THANKS EVEN IN TIMES OF ADVERSITY****By Robert J. Tamasy**

일부 국가에서 특별한 감사의식이 거행되는 시기로 또다시 접어들었다. 감사를 위해 공휴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추억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경험했던 율한 해처럼 고난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찾아온다. 분명 누군가는 의문을 품을 것이다.

“감사하라고? 도대체 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몇몇은 개인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고통받고 있으며, 다른 누군가는 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사실상 모두가 정부의 공식적 폐쇄 명령으로 인한 실직상태, 정리해고, 수입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감사의 날로 지정된 기간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알버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의 인생은 연이은 불행으로 얼룩졌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기업가로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극심한 좌절 앞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를지도 모른다. 반면 알버트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자신을 삶을 돌이켜 보았다. 심지어 그는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라는 책까지 쓴 바 있다. 그 책을 통해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헤쳐 나가야 했던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들을 가져다주셨으며, 기쁨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만족감으로 채워 주셨음을 간증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몇 년 전, 또 한 명의 친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오직 이 두 가지만 남게 될 거야.”

Once again we enter the time of year when in some countries, special thanksgiving observances take place. Even though it does not require an official holiday to be thankful, sometimes we need a reminder. Especially during a year like the one we all have been experiencing, with adversity coming in many forms. No doubt some people are wondering, “Giving thanks? For what?”

Without question, the global coronavirus pandemic has affected each of us in different ways. Some have suffered from the virus personally, others have lost loved ones. Virtually everyone has felt the economic impact of mandated shutdowns, whether through lost jobs, layoffs, or decreased profits and revenues.

As a result, we might find ourselves challenged, at a time designated for thanksgiving, to feel thankful. And yet, I am reminded of my friend Albert, whose life has been marked by one form of adversity after another: Growing up as a child in the Netherlands during World War II; illness and disease; then many challenges he had to overcome as an entrepreneur.

Some might respond to serious setbacks like these by shaking their fists at God. Instead, Albert looks back on his life with genuine gratitude. He even wrote a booklet called, “Saying ‘Thank You’ Even When You Don’t Feel Thankful.” In it Albert recounts not only the hardships he and his family had to endure, but also the many ways the Lord used those difficult times to transform his life, presenting opportunities he could never have imagined, and filling it with joy and a profound sense of fulfillment.

What is the secret? Years ago, another friend often observed, “When it is all said and done, only two things will remain: the Word of God, and people.” We have the enduring, timeless truths God has given to us through the Scriptures. And then there are the lives we touch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지속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내야 할 삶과 구원에 이르도록 영향을 끼쳐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성경에는 감사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원칙들이 있다.

추수감사절은 계속된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거나 별도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의 현재진행형 되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추수감사절은 기대되는 날이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한 상황을 자신과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20)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날이다.

주께 감사를 돌린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삶의 물질적 축복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음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2)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4)

during our days on earth, people we can impact for eternity. If we keep those as our focus, we can be thankful regardless of what circumstances we encounter, good or bad.

Briefly, here are some helpful principles from the Bible about thanksgiving:

Thanksgiving is continual. We do not need to pause from activities, or set aside special times to express thanks. It should be an ongoing attitude of the heart.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1 Thessalonians 5:16-18).*

Thanksgiving is expectant. Even in the midst of adversity, trust in God enables us to believe with confidence that He will use our circumstances for His – and our – ultimate good.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Ephesians 5:20).*

Thanksgiving is giving back to God. Giving thanks to the Lord means acknowledging all He has done for us, knowing that even though we did not deserve His love, grace and mercy, He has given them to us freely – along with the material blessings of this life. *“Let us come before him with thanksgiving and extol him with music and song” (Psalm 95:2).*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and bless his name” (Psalm 100:4).*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가요? 의견을 나눠봅시다.

When you hear the word "thanksgiving," what comes to your mind? How easy is it for you to express thanks to others – even to God? Explain your answer.

2. 현재 당신의 감사 수준을 1에서 10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If you were to rate your personal level of thankfulness right now, on a scale of 1 (low) to 10 (high), what score would you give it? Why did you give it that score?

3.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더라도, 올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두 세 가지가 있다면 얘기해봅시다.

What are two or three things you feel thankful for, even if you have encountered some very difficult times during this year?

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진실로 믿나요? 당신만의 언어로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Do you genuinely believe the biblical promise that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Him? How would you explain that in your own words?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시편 50:14-15, 100:1-5; 107:1-9, 19-22, 빌립보서 4:6, 골로새서 4:2, 디모데전서 4:4-5

-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편 50:14-15)
-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시편 100:1-5)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시편 107:1-9)

-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시편 107:19-22)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 4:6)
-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로새서 4:2)
-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디모데전서 4:4-5)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